

우리말 권주가(勸酒歌)의 계통적(系統的) 연구*

강재현**

<차 례>

1. 서론
2. 내용의 계통성
 - 2.1. 장진주 주제 전통의 계승
 - 2.2. 주제 표출의 동일성
3. 계통화된 유통
 - 3.1. 우리말 권주가의 전승 양상
 - 3.2. 우리말 권주가의 독자적 유통
4. 결론

<국문초록>

음주가 인간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이며 그 안에서 문학적 생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음주 문학 중에서도 권주라는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가, 특히 우리말 권주가의 특성을 살피고 동양 문학에서 그 연원이 오래된 ‘장진주’ 시가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말 권주가의 내용적 일체성과 작품군의 실상을 고찰한다.

우선 우리말 권주가가 갖는 주제의식과 그 표출 양상을 살폈다. 내용적으로 이 작품들은 모두 당나라 이백, 이하의 <장진주>에서 드러냈던 주제의식이라는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인생무상에서 오는 비애의 정감’과 그에 따른 ‘음주의 당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주제의식은 <장진주사>부터 12가사류<권주가>까지를 모두 관류(貫流)하고 있다. 또 이 작품들은 이러한 주제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817).

** 충남대학교

나타내기 위하여 몇 가지 동일한 표출 양상을 보인다. 우선 이하의 <장진주>에서 비롯된 죽음 이후의 무의미함을 통해 인생무상을 노래한다. 사망 이후에 누가 술을 권하겠는가라고 지적하여 비애와 당위를 모두 드러내는 양상이다. 다음으로 권주의 대상 ‘君, 그대’가 표면적이거나 내면적으로 등장한다. 자작(自酌)이 아닌 수작(酬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노래이기에 대상의 존재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술 권하는 행위가 언사(言辭)로 나타난다. ‘잡으시오, 먹새그려’ 등의 직접적 명령이나 권유 외에 ‘안 먹으려 하는가’와 같은 간접적 요구도 등장한다. 이러한 어구들이 모두 권주의 실제적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말 권주가의 세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이 계통의 최초 작품은 <장진주사>라 할 수 있다. 이 노래와 함께 청구영언에 수록된 신희·김천택·무명씨의 시조, 박인로의 <권주가>는 동시대에 향유되었다. 또한 12가사 <권주가> 역시 18세기에 형성되었는데 후대 가집에서 앞의 세 종과 혼재되어 나타난 양상을 보인다. 즉 네 노래가 일정 시간에 같은 연행 공간에서 향유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계통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개별 작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하나의 독립 계통으로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노래를 하나의 계통으로 파악했던 예를 ‘어부가’에서 찾을 수 있다. 한시 ‘어부사’에 대비하여 우리말 노래를 ‘어부가’로 계통화한 것이다. 그에 비출 때, 우리말 권주가 역시 계통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파악하였다. 물론 각편 연구에서 얻어지는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계통화를 통해 국문시가의 폭과 영역이 확장되고 문학사의 지평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권주가에 대한 시각을 거시화한다면 조선 후기 우리문학사가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가 현재 전수받은 작품들이라는 것은 그 세력이 강하든 약하든 생존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므로 이외의 작품 역시 그 가치가 크다. 더욱이 선인들 역시 <장진주사>의 존재가 막강함에도 다른 우리말 권주가를 향유하고 창작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김수장 시기에 「어부가」가 하나의 작품군으로 독립성을 지닌 것처럼 지금 시기에 우리말 권주가를 개별적 계통으로

인정해야 옳다고 여긴다.

핵심어 : 우리말 권주가, 인생무상, 비애의 정감, 장진주사, 권주가, 시조, 가사,
계통화, 계통

1. 서론

문학이 창출되는 공간은 인간의 삶이 영위 되는 현장 어느 곳이나 될 수 있다. 통과외례를 비롯한 인간 여정의 현장 뿐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내는 모든 문화 공간에서 문학이 창출된다. 그런데 어떤 문학의 갈래들은 일정한 공간이 보장될 때 등장하는 경향을 지니기도 한다. 특정 노동 현장에서 불리는 기능요, 특정한 제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서사물, 개별적 경험과 공간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기행물 등이 그러하다. 그들은 인간 삶의 보편성을 노래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과 공간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수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주석(酒席)이다.

술은 신화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하였다. 또한 음주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 장르가 이루어진 역사 역시 오래이다. 이 중 문학은 거의 기본적인 음주 관련 문화라고 하겠다. 그렇기에 음주 관련 문학은 다양하게 분화하였다. 문인들은 술에 대한 찬양, 주석에 대한 기쁨, 정회, 상황 등을 문학으로 창출하였다. 이 다양한 음주 관련 노래들 가운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말 권주가¹⁾’이다. 왜냐하면 이 계통의 노래는 자리에 함께

1) 작품 제목으로 쓰인 것으로 「장진주사」, 「권주가」의 두 종류이다. 그런데 전자에서 사용하는 ‘장진주’는 한시적 속성을 강하게 띄고 있어 사용이 어렵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권주가’라는 이름이 구가, 현행가 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말로 이루어진 술 권하는 시가 작품 전체를 ‘우리말 권주가’라 명명하고자 한다.

한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만 하는 당위’를 창작 목표로 삼는 독특한 형태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즉 문학이 가지는 주제의식 이외에 행위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의도적 작품 창작이 이루어지는 갈래가 이 노래들이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는 ‘권주 노래’가 동양 문학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한대(漢代)이다. 성범중의 논의에 의하면, 漢나라 때 「將進酒」라는 제목의 3언으로 이루어진 고취악(鼓吹樂)이 나타나 처음 궁중 연회의 모습을 그려냈고, 당나라 대에 이르러 李白과 李賀의 「將進酒」가 개인의 정서를 적어 내는 작품으로 창작되어 후대의 전범이 되었다고 한다.²⁾

이러한 중국 문학의 영향을 받아 우리 문학에서 ‘장진주’ 계열의 노래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대이다. 이규보가 이하의 「장진주」를 이어 지은 「속장진주가(續將進酒歌)」가 우리 문학에서의 처음이다.³⁾ 이후에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에 의하여 「장진주」라는 제목으로 창작되거나 차운한 한시가 다수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한시의 전통을 이어서, 정철(鄭澈)에 이르러 본격적인 우리말 권주가인 「장진주사」가 만들어졌다. 물론 시기를 알 수 없는 술 권하는 내용의 시조들이 존재하여 「장진주사」를 시초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작품들은 최초의 가집인 『진본청구영언』에서도 무명씨에 수록되어 있어 규명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료로는 정철의 이 노래를 우리말 권주가의 효시로 볼 수밖에 없다.

『진본청구영언』에 의하면, 신흠과 김천택의 시조가 정철의 뒤를 잇는다. 또한 같은 책에는 무명씨와 낙시조, 만항청류에 권주 노랫말을 지닌 시조들도 등장한다. 여기에 창작시기는 『청진』보다 앞서지만 21세기에 발견된 박인로의 가사 「권주가」가 형태를 달리하는 동일 계통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12가사류 「권주가」가 형성되어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우리말 권주가는 조선 중후기 우리 문학사에서 당당히

2) 성범중, 「〈將進酒〉 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韓國漢詩研究』11, 한국한시학회, 2003, 381쪽.

3)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16권, 古律詩, 「속장진주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그 장르적 형식에 있어 시조, 가사, 잡가, 새로운 가곡창 등 통일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들은 개별 작품으로나 한시와의 연관 속에서 개체로서 연구되어 왔다.⁴⁾ 본고는 이러한 권주 노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歌郡을 내용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인자를 지적하고자 한다.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사나 내용적 일체성을 살피는 작업을 거쳐 내용에서의 계통성을 살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계통성을 가진 우리말 권주가의 세력과 유통의 실상을 확인하여 이 노래들이 단순히 독자적 생명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일부 한정된 공간에 구속받지 않고 술 자리 안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유통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작품군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밝힐 것이다.

2. 내용의 계통성

2.1. 장진주 주제 전통의 계승

권주 노래의 내용적 일체감을 이루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주제의 형상화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권주 노래의 주제는 당나라 이백과 이하에서부터 고착화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생무상’과 ‘음주의 당위’이다. 이하의 「장진주」를 통해 보도록 하겠다.⁵⁾

4) 권주 노래에 대한 연구사는 본론에서 거론될 것이므로 서론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5) 이백의 장진주 역시 주제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의 장진주는 고취악과 궁중악적 특성을 지니므로 논외로 한다.

將進酒	
琉璃鐘	맑은 유리잔에
琥珀濃	호박빛 진한 술
小槽酒滴眞珠紅	작은 술통에는 술 방울 진주처럼 붉구나
烹龍炮鳳玉脂泣	좋은 안주에서는 기름이 흐르고
羅屏繡幕圍香風	비단 병풍 수 놓은 장막에는 향풍이 감도네.
吹龍笛	용피리를 불고
擊鼙鼓	악어 가죽 북을 치니
皓齒歌	절세미인이 노래 부르고
細腰舞	하늘 하늘 춤을 추네.
況是青春日將暮	게다가 이 봄날 저물어가고
桃花亂落如紅雨	복사꽃 어지러이 붉은 비처럼 떨어지네.
勸君終日醕醑醉	권하노니 그대여, 종일토록 흠뻑 취해보세
酒不到劉伶墳上土	유령의 무덤까지 술이 가지는 않으리라.

작품의 핵심이 있는 곳은 마지막 두 구절이다. 죽림칠현 중 하나인 유령의 음주는 유명한 고사이다. 하지만 그의 무덤에 가는 술은 없다는 시구는 바로 인생 무상⁶⁾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날 지면 사라지는 복사꽃 같은 인생에서 벗에게 권하는 것은 취흥(醉興)이다. 인생 가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취하지 않고 어찌 지내겠는가의 의미를 담았는데 이것이 바로 음주의 당위⁷⁾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 주제는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악부를 포함한 한시에서 그 의미가 지켜져 왔다.

주제의 전통은 우리 문학에도 그대로 이어져 이규보 이후 창작된 한시가 모두 이러한 정조를 기반으로 창작되었다.

續將進酒歌

이하(李賀)의 將進酒에 ‘술은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도를 깨달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부연하여 속장진주가라 이름한다.

6) 인생무상은 현세적 세계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7) 현세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눈앞의 소통과 교감을 위한 유희지향적 자세라고도 할 수 있다.

寄語杯中藍色酒
 百年莫厭相逢遇
 綠髮朱顏能幾時
 此身危脆如朝露
 中略
 請君聽此莫辭飲
 酒不到劉伶墳上土

쪽빛 술아 너에게 말하노니
 평생토록 서로 만나기를 꺼려 마오
 청춘이 그 얼마나 되겠는가
 이 몸 위태함이 아침 이슬 같구나
 그대여 이 말 듣고 술 사양치 말지어다
 유령의 무덤 위에 술 이르지 못하나니⁸⁾

이규보는 道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하의 「장진주」를 극찬하였다. 이는 그가 장진주의 주제에 매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에 대하여, 성범중은 “중국 당나라 이하로 제작된 수많은 <장진주> 계열의 작품들이 대개 인간 생명의 유한성에서 오는 허무의식에 기초하고 있다.”⁹⁾ 하여 전체 작품군이 ‘비애의 정감’을 기저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생 무상에서 오는 비애의 정감이 음주의 당위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품군의 동일한 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철 <장진주사> 이후의 우리말 권주가는 어떠할까. 우선 정철 <장진주사>와 박인로 <권주가>의 경우는 중국 장진주의 전통적 주제의식을 잇고 있다. 강재헌의 비교 연구를 통해 두 작품이 보편성과 개별성의 차이는 보이지만 전통적 주제의식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¹⁰⁾

두 작품과 비슷한 시기의 여타 우리말 권주가의 경향도 살펴보겠다. 『청진』에 수록된 신흠(1566-1628)과 김천택(?-?)의 작품, 무명씨 삼삭대엽의 435-438-448, 낙시조 460, 만황청류 486가 그들이다. 이 가운데 신흠과 김천택의 작품을 들어 장진주 주제 전통을 살펴보기로 한다.

8)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16권, 古律詩, 李賀將進酒曰 酒不到劉伶墳上土 此誠達道之言也 故廣其辭 命之曰續將進酒云

9) 성범중, 앞의 논문, 412쪽.

10) 강재헌, 「정철 <將進酒辭>와 박인로 <勸酒歌> 대비고찰」, 『어문연구』 74, 어문연구학회, 2012.12, 157-174쪽.

술먹고 노는 일을 나도 원줄 알건마는
 信陵君 무덤 우회 밧가는 줄 못 보신가
 百年이 亦草草하니 아니 놀고 엇지헝리 (청진 125)

신흙의 위 노래는 대상이 타인으로 설정되지는 않고 자신의 음주에 대한 변명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장의 ‘못 보신가’가 단지 개인적 음주가 아닌 술을 경계하는 他者에게 권고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즉 혼자의 飲酒醉樂이 아닌 共醉를 권고하여 음주의 당위를 말한다. 또한 戰國 4군자 중 하나인 신릉군을 들어 인생이 무상하다는 비애의 정감을 토로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마실 수 없음을 보인다. 이처럼 신흙의 시조 역시 장진주의 전통적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신흙의 시조가 단발적이라고 한다면 김천택의 권주 시조는 연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청진』의 267부터 271에 이르는 5 작품이 권주의 연속적 풀이로 나타난다. 이 중 첫 작품을 들어 보도록 하겠다.

내 부어 勸하는 盞을 덜 머그려 辭讓마소
 花開鶯啼하니 이 아니 도흔 쟈가
 엇더타 明年看花伴이 놀과 뵈 줄 알리오 (청진 267)

초장에서 이미 김천택은 음주의 당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술 사양하는 짝에게 던진 ‘내년에 누구와 꽃 피는 광경을 알 수 없으니 주저치 말라’는 力說이다. 271의 종장 ‘有限한 人生이 아니 놀고 어이리’까지 김천택의 이 다섯 작품은 모두 인생의 무상함을 달랠 존재로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주제-장진주적 인생무상과 음주의 당위-를 가진 다섯 작품을 김천택 역시 한 묶음으로 여겨 같은 위치에 연속적으로 자리잡게 배치한 것이다. 그는 첫 작품을 권주의 노랫말로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연작적 속성을 강하게 집중시켰다.

이처럼 우리말 권주가가 정철로부터 김천택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두 장진주적 주제 의식을 확실히 지니고 있으며, 작자들 역시 이를 인식한

창작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조선후기의 12가사류 「권주가」의 내용적 속성만 밝혀낸다면 우리말 권주가에 하나의 주제의식이 貫流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12가사 권주가의 주제 파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은희는 12가사류 「권주가」 노랫말 형성의 주요 요소로 ‘권주’ 기능상 갖게되는 근원적 유희성을 첫째로 보고 있다.¹¹⁾ 이창배는 “12가사의 하나로 불리는 「권주가」는 장단없이 적당히 부르는 것이 특색인데, 술을 권하는 노래가 즐겁거나 흥겨운 노래가 아니고 꼭 자체가 어딘가 슬픔을 띤 노래”¹²⁾라 지적하였다. 이 지적에 대하여 성범중은 “술을 권하는 한글노래들도 바로 이런(당시 이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비애의 감정을 띠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¹³⁾ 정인숙은 “12가사 권주가류의 노랫말 중 구가는 인생무상, 허무, 탄식의 정감이 강한 반면, 현행가는 구가의 정감을 이으면서도 頌祝的 분위기가 상당히 가미된 것이라고 하고, 그 이유가 12가사 권주가류의 연행 공간이 ‘수연과 같은 자리에서 불려진 현수음악’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⁴⁾

이들의 12가사 권주가 주제를 정리한 것을 보면 그 연행적인 흥겨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조 정감은 “人生無常에 따른 음주의 당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송강의 「장진주사」로부터 노계의 「권주가」, 상촌·남파 등의 시조를 거쳐, 조선후기의 12가사류 「권주가」를 우리말 권주가의 내용은 장진주 계열의 주제 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이들이 형태적으로는 여러 장르에 펼쳐져 있지만 주제 안에서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김은희, 「〈권주가〉에 대한 일고찰 - 노랫말 존재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1, 반교어문학회, 2011.8, 184쪽.

12) 이창배 편저, 『韓國歌唱大系』, 홍인문화사, 1976, 83쪽.

13) 성범중, 앞의 논문, 412쪽.

14) 정인숙,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형성과 변화의 맥락」,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12, 31쪽 요약 발췌.

2.2. 주제 표출의 동일성

필자는 우리말 권주가의 주제 의식이 이백, 이하의 「장진주」에서 계승된 통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계통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제 노래 안에서 그 주제가 표출될 때의 양상을 통해서 우리말 권주가가 동일 계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노래의 기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권주이다. ‘勸하다’는 ‘(나 이외의 他者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권주는 방향성을 지닌 행위이기에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동작인 것이다. 이백, 이하, 이규보 작품에 객체로 등장하는 ‘君’이 바로 그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말 권주가에서도 이러한 권주의 객체를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정철의 「장진주사」에는 ‘君’이나 ‘그대’와 같은 언사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먹새그려’의 청유형 종결을 고려하면 송강이 일종의 ‘벗’을 상대로 설정한 후 작품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박인로의 「권주가」는 이백 「장진주」의 첫 ‘君不見 黃河之水天上來’를 차용하여 ‘그대는 내 말 듯소 黃河水 아니 본가’로 객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시조의 경우에는, 신희과 김천택의 작품에서 ‘君, 그대’의 명확한 객체 제시는 없다. 그렇지만 ‘못 보신가’라는 질문, ‘사양마소’라는 명령의 화법을 통하여 ‘잠재된 객체’를 고려한 창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조선후기 12가사류 「권주가」 구가의 경우에도 구체적 ‘그대’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첫 시작에서 ‘잡으시오’의 명령형이 나타나 대상이 있는 노래임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현행가의 경우는 3행에 이하 「장진주」의 ‘勸君終日醕醕醉 酒不到劉伶墳上土’를 용사하여 객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말 권주가는 대상에게 주제의식을 발산하는 표출 방식을 공히 지닌다.

다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주제는 권주 행위의 표출이다. 이러한 술을 권하는 동작은 작품들에서 여러 종결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직접적

언사로는 정철 「장진주사」의 ‘떡새그려’, 박인로 「권주가」의 ‘떡사이다’, 김천택 시조의 ‘사양 마소’, 구가 「권주가」의 ‘잡으시오’, 현행 「권주가」의 ‘떡사이다’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간접 행위 제시로는 신희 시조 등에서의 ‘아니 놀고 어이리’를 들 수 있겠다. 간접 행위 제시는 해당 구절만으로는 개별적 유희로 보이지만 ‘못 보는가’ 등과 연결할 때 권주가 동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위의 직접 표출 수사는 다시 청유와 명령 두 양상으로 살필 수 있다. 청유는 ‘떡새그려’의 평칭과, ‘떡사이다’의 존칭 둘로 나뉜다. 「장진주사」의 경우처럼 편안한 벗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떡새그려’라고 한다면, 박인로나 현행 「권주가」처럼 윗사람에게 헌작(獻酌)작하는 경우가 ‘떡사이다’라 하겠다. 박인로의 경우, 윗사람인 선산부사 앞에서 부른 노래이기에, 현행 12가사류 「권주가」는 주로 수연(壽宴)에서 쓰인 것으로 이러한 종결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명령의 경우도 강성과 연성의 둘로 파악할 수 있다. 김천택 시조의 ‘사양마소’는 상대에게 권주의 강도가 덜하다. 그런데 구가 「권주가」의 경우는 ‘(이 술을 마시면 천만 년을 살 것이니) 권할 적에 잡으시오’라고 강한 명령을 나타낸다. 구가의 경우, 수연헌작(壽宴獻酌)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우리말 권주는 음주의 당위를 청유와 명령의 종결로서 구체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주의 당위를 천명하는 표현적 특성을 배태한 주제적 형성은 어떠한가. 장진주 주제 전통으로 거론할 수 있는 이하의 작품에서 그 핵심은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함’에서 오는 ‘비애의 감정’이다. 우리말 권주가에서 이러한 주제적 양상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작품인 「장진주사」에서는 ‘뉘흔췌 먹자홀고’의 구절이 이러한 허무와 비애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박인로와 현행가의 경우는 이하의 구절 ‘酒不到劉伶墳上土’을 그대로 차용하여 주제 의식을 잇고 있다. 신희는 유행 대신에 ‘신희군의 무덤’을 사용하여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

고, 김천택은 ‘내년에 누구와 꽃 구경할 줄 아는가’라 하여 죽은 뒤의 무상함을 말하였다. 구가의 경우는 죽은 후의 공허함을 나타낸 직접적 구절은 없지만 소동파의 「前赤壁賦」의 ‘哀吾生之須臾 羨長江之無窮’을 인용하여 인생무상을 표출하고 있다. 즉 인생무상에서 오는 슬픔은 음주 당위의 전제로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후대 12가사류 「권주가」 구가와 현행가는 여기에 하나의 비애가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이별의 슬픔이다. 구가의 경우 마지막 두 행이 ‘새벽서리 찬 바람에 외기러기 슬피 운다.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한 구름 밖에 비인 소래뿐이로다 오동추야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나를 생각하는가¹⁵⁾’로 나타난다. 현행가의 경우, ‘새벽 서리 찬 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한 구름 속에 비인 소래 뿐이로다’로 전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구절이 제시되어 있다. 12가사류 「권주가」 속성인 壽宴獻爵의 내용 속에 왜 이처럼 외로움의 정조가 배태되었는지는 구명할 수는 없다. 그래도 외로움이 인생에서 느끼는 슬픔의 큰 부분임은 분명하다. 즉 비애의 정감은 여전히 주제의식의 한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 권주는 주제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을 견지하는 내용적 동일성을 기반으로 창출되었다. 대상이 있는 ‘권주’가 첫 번째 축이고, 그 안에 ‘슬픔’이라는 심상을 제시함이 두 번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제를 지향하는 모든 작품은 ‘우리말 권주가’라는 하나의 계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15) 정인숙은 앞 구절은 조선후기 애정가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이고, 뒷 구절은 「상사별곡」에서 따왔다고 하였다(정인숙, 앞의 논문, 14쪽).

3. 계통화된 유통

3.1. 우리말 권주가의 전승 양상

현재 우리말 권주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여기서 전승이란 현재 노래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문헌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말 권주가는 유사한 시기에도 독립적 창곡(정철 「장진주사」), 가사(박인로 「권주가」), 시조(신흙, 김천택 등)로 다양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우리말 권주가가 다양한 음악적 층위로 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도 ‘將進酒’가 樂府詩, 古詩 등 다양한 형태로 향유되었음을 상기하면 그 세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 권주가가 향유 양상은 어떠할까.

이러한 의문을 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신흙의 『상촌집』에 등장하는 「將進酒」라는 동일한 제목의 세 작품이다. 『상촌집』 3권에 「將進酒短曲」「將進酒長曲」의 두 수가, 4권에는 「漢鑿歌 將進酒」가 수록되어 있다. 신흙은 같은 악부체로 한시를 지으면서 왜 굳이 작품을 둘과 하나로 나누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래 글이다.

악부(樂府)는 시(詩)의 유(類)이며 가(歌)의 조(祖)이니, 이 또한 풍아(風雅)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당(唐)·송(宋) 이후로는 사곡(詞曲)을 하는 자들이 모두 악부를 따라서 서술하였다. (중략) 나는 스스로 자신을 헤아리지 않고 이를 모방하여 지으면서 간간이 귀와 눈으로 보고 기억한 것들을 섞어 넣고 여기에 부록하여 편(篇)으로 삼노니, 음과 사실이 구비되었다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세상을 한탄한 것의 일부분일 뿐이다.¹⁶⁾

위의 글은 신흙이 『상촌집』 권3에 수록된 악부체 49수에 병기한 서문

16) 신흙, 『象村集』 권3, 樂府體 49수, 樂府詩之類而歌之祖亦風雅之餘也 唐宋以後爲詞曲者 皆從樂府而演之 (中略) 余竊不自撥傲而爲之間雜耳目所觀記 附以爲篇 非謂音與事備 抑傷世之一端云爾.

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은 신흙이 악부화한 작품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49수는 1) 모방하여 지은 작품과 2) 귀와 눈으로 기억한 것 둘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신흙이 49수의 작품 각각에 대하여 어디에 속하는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서 어느 것이 모방작이고 어느 것이 채록작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권3의 작품 두 수가 「장진주」의 가장 원형인 한나라 鑿歌가 아님은 권4의 작품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성범중의 논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¹⁷⁾ 이 두 편은 이백과 이하의 「장진주」 주제 의식을 계승한 것이다. 즉 한문학으로는 한과 당의 악부가 모두 병행된 상태로 상존 당대까지 향유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당 이백 이하 이후 주제의식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짧고, 긴 노래가 한시로 향유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장진주’의 문학 전통은 장가와 단가의 두 방향이 일찍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말 권주가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장진주 형식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우리말 권주가의 존재 양상을 살피기로 하겠다. 우선 짧은 노래의 경우가 『청진』 수록 작품들이다. 앞서 인용한 김천택의 권주 노래 연작과 삼삭대엽의 세 수, 낙시조·만황청류의 1수 등 다양한 작품이 당대에 형성되고 향유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百年을 假使人人壽 | 라도 憂樂이 中分未百年을
 흐리며 百年 반듯기 어려오니
 두어라 百年前식지란 醉코 놀려 흐노라 (청진 435)

三數大葉에 수록된 위 작품은 현행 권주가¹⁸⁾ 4행의 내용과 같다. 무명

17) 성범중, 앞의 논문, 383-384쪽 요약 인용.

18)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정인숙(앞의 논문, 19-20쪽)이 정리한 현행가를 옮긴다.

❶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부어 비나니다 남산수를/❷ 약산동대 어즈러진 바회 꽃을 꺾어 주를 노며 무궁무진 잡이시오/❸ 권군중일명정취하자 주부유

씨로 소개된 작품이어서 그 창작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 권주가가 『청진』 이전 즉 18세기 이상 소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이후의 시조에서도 우리말 권주가의 세력은 확연하게 나타난다. 우선 현행가 1과 유사한 시조로 『청육』의 작품을 보도록 한다.

不老草로 비즌 술을 萬年盃에 가득 부어
 자부신 蠶마다 비느니 南山壽를
 眞實로 이 蠶곳 자부시면 萬壽無疆 ㅎ오리다 (청육 92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주가의 1행과 초중장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 작품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청육』에는 12가사 구가가 따로 전체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가집에 수록된 장가 「권주가」와 위 시조 작품에는 친연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구가와 현행가가 이미 『청육』시기에 서로 나뉘어 불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위 926에서 현행가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말 권주가의 세력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충분하다.

현행가 내용의 향유 양상에 대한 다른 증거로 2행과 내용상 동일한 부분을 지닌 아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藥山東臺 여지리진 바위 꽃슬 씩거 籌를 노며 無盡無盡 먹스이다

령분상토니 아니취코 무엇하리/④백년을 가사인인수라도 우락중분미백년을 살았을 대 잘 놓시다/⑤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위 마라 명년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하다 우리 인세/⑥오동추야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나를 생각하는지 나만 홀로 이러한지 임도 또한 이러한지/⑦새벽 서리 찬 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한 구름 속에 비인 소래뿐이로다/⑧왕상이 이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오리라/⑨이 술 한 잔 잡으시오 이 술을랑 반도연의 천일주니 쓰나다나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라/⑩인간오복수위선은 예로부터 이른배라 비나이다 비는 바는 산하 같은 수부귀를 천년만년 누리소서

人生 한번 도라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勸할 적에 잡으시오 百年假使人人壽라도 憂樂을 中分未百年을 勸할 머디 잡으시오 羽曰壯士 鴻門樊噲斗扈酒를 能飲호되 이술 한 盞 못먹었네 勸할 적에 잡으시오
勸君更進一盃酒호니 西出陽關無故人을 勸할 머디 잡으시오
(『대동풍아』 313, 제목: 勸酒歌)

『대동풍아』에서 형태상 사설시조로 분류하고 있는 작품인데 제목까지 ‘권주가’라 되어 있어 우리말 권주가로 인식되었음이 확실하다. 약산(평북 영변의 지명) 동대를 사용한 것부터 시작하여 중간의 한문 구절 등 현행 「권주가」와의 친연성이 강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지금과 같은 완성된 현행 「권주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큰 세력을 지닌 노래로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의 시조들과 송강과 노계의 작품을 더하면 조선의 권주 노래 형태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노래 작품군이 왕성하게 세력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문학사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노래들이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음을 본다면 김은희의 주장은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결정적인 예로 정철의 「장진주사」는 현재까지도 그 창법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수가 지은 『여창 가곡 여든여덟 낫』에는 가곡창 레퍼터리 마지막 곡인 「태평가」 다음에 「장진주」라는 제목으로 ‘장진주사’가 수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작자로 정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약간의 노랫말 수정이 있어서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잔 먹사이다 또 한잔 먹사이다 꽃 꺾어 籌를 놓고 무진무진 먹사이다
이몸이 죽은 後에 지게우혜 거적덜어 주푸리어 메어가나 流蘇寶帳에 白夫
總麻 울어예나 어욱새 더욱새며 덕게나무 白楊숲에 가기곤 가량이면 누른해
흰달과 굵은눈 갈비며 쇠소리 바람불 제 뉘 한잔 먹자하리
하물며 무덤우에 잔나비 파람혈 제 뉘우친들 맞으랴¹⁹⁾

19) 김기수, 『여창 가곡 여든여덟 낫』, 은하출판사, 1980, 188-191쪽.

몇 군데 어휘적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철의 「장진주사」의 전승임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박인로의 「권주가」 역시 후대 전승이 김석배의 연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²⁰⁾ 이전 연구와 새 자료를 바탕으로 그는 19세기 중후반 가집인 『잡가』와 『海東遺謠』에 이어지고, 그 내용에서 약간의 가감의 상태로 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시조류의 우리말 권주가 역시 여러 가집에 실려 후대로 전승되었으니 이 세력의 강성함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각 노래가 독자적 세력을 유지한 상태로 전승되었고 그것은 공존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즉 酒席의 성격이나 가창자의 실력에 따라서 상황의 필요와 결부하여 선택적 전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청육』과 같이 여러 창곡(가곡창, 가사창, 잡가창)을 모아 놓은 가집에서 그들이 함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조선후기 악부를 정리한 이유원(1814~1888)의 기록이다. 그가 『가오고략(嘉梧藁略)』에 남긴 「속악가사 16가사」의 가사 작품 제목명이다.

楚漢歌 - 春杵歌 - 漁父詞 - 將進酒 - 處士歌 - 彈琴詞 - 春眠曲 - 關東別曲 - 梅花詞 - 白鷗詞 - 黃鷄詞 - 道鼓樂 - 名山詞 - 相思別曲 - 勸酒歌 - 十二月歌²¹⁾

위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진주와 권주가가 같은 자리에서 보이는데 그 위치가 그 당시 유행하던 가사 16편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조선말에 이 권주가류 노래는 같은 공간 안에서 공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타의 한시나 시조의 것은 배제한 순수 가사의 모습을 지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장르의 권주가가 동시에 향유

20) 김석배, 「박인로의 <권주가> 연구」, 『문학과 언어』 30집, 문학과 언어학회, 2008.5, 36-45쪽.

21) 이유원, 『가오고략』 책1, 「樂府」, 「俗樂十六謠詞」.

되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4번째 장진주는 정철의 장진주사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전 시기의 노래와 현 시기의 노래가 같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권주가가 구가인지 현행가인지는 알 수 없다.

君莫辭乎君莫辭 酒非酒也露莖欺 一盃把把不辭把 萬萬千千壽考宜

위에서 보이는 기구와 전구는 사양말고 술잔을 받으라는 일반 권주가의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승구의 “이슬(露莖)”은 구가의 1행 “이 술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로반에 이슬받은 것이오니”에서 온 것이다. 또한 마지막 절구의 祝壽는 현행가 마지막의 “수부귀를 천년만년 누리소소”에서 따왔다. 그렇다면 조선말 이유원은 구가와 현행가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권주가의 큰 주제인 술 권함을 틀로 악부를 7언 절구로 압축하여 지었다고 여긴다.

이상의 작품군의 실상을 살펴보면 우리말 권주가계 노래는 조선 후기까지 그 세력이 굳건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노래가 산발적으로 불린 것이 아닌 계통적으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우리말 권주가의 독자적 유통

우리말 권주가는 생성된 이후 현재까지 그 생명력이 끊이지 않고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 노래들의 형식에 따라 논의 방향이 달라진다. 우선 정철의 「장진주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홍만중이 『旬五志』에서 장가(長歌)로 분류하여 그를 따르자는 설부터 후대 가집에 사설시조로 취급하고 있으니 그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완형은 이에 대해 “「장진주사」를 송강 당시까지 유행하던 가사체, 연장체 장가들과 같은 장가 계통의 가곡으로 보고 이들과는 달리 형태상 단형인 점을 감안하여 단형

체 장가, 즉 장진주사계 장가”로 보고자 하였다.²²⁾ 필자 역시 현재의 존재 양상과 『청진』의 수록 양상을 고려하여 정철에 의하여 창출된 가곡창으로 보고자 한다. 전승 자체가 가곡창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김천택과 김기수에 의하여 확인된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여타의 시조와 박인로 「권주가」는 그 형식이 분명하게 나뉘어 전승되었음이 가집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12가사류 「권주가」에 대해 김은희는 해당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²³⁾고 밝혔다. 정인숙 역시 12가사 권주가류가 풍류의 쇠퇴와 더불어 사설의 일부가 이미 획득했던 고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연행 현장에 부응하는 사설이 첨가, 부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²⁴⁾ 그렇다면 현재 우리말로 전하는 12가사 권주가류의 노래들은 단순 집구 용사의 수법이 아닌 구비문학과 같은 적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이처럼 우리말 권주가의 다양한 형식에 의하여 복잡한 전승 과정을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재고하면 우리말 권주가가 향유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계통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작품이 바로 정철의 「장진주사」이다. 『청진』에서 「장진주사」의 위치는 ‘낙시조-장진주사-맹상군가-만황청류’이다. 이는 김천택이 송강 「장진주사」를 하나의 독립된 노래로 인지하였다는 점이다. 이완형은 송강 「장진주사」를 별도의 곡으로 상정한 가집을 9책으로 확인하였다.²⁵⁾

또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존재가 박인로의 「권주가」인 것이다. 현재 장가로서 最古의 작품은 박인로의 「권주가」임이 확실하다. 여타 박인로 가사보다 그 전승 정도나 세력에서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권주가」 역시 별

22) 이완형, 「송강의 장진주사 연구」, 『어문연구』26, 어문연구학회, 1995, 15쪽.

23) 김은희, 앞의 논문, 전체 참조.

24) 정인숙, 앞의 논문, 전체 참조.

25) 이완형, 앞의 논문, 9-10쪽.

도의 세력을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장진주사」처럼 가창 환경에 대한 명확한 구명이 쉽지는 않지만 12가사류 「권주가」처럼 수연헌작(壽宴獻酌)과는 다른 환경에서 전승되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진주사」, 「권주가」, 시조의 세 가종은 18세기 초 이전에 형성되어 조선말을 거쳐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인생무상의 비애감에 더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덧붙인 노래 - 12가사류 권주가의 출현은 18세기로 추정된다.²⁶⁾ 이는 우리말 권주가 4종이 모두 향유의 현장에서 혼재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 현장은 어디였을까?

필자는 이를 위해 구가와 현행가에서 공히 보이는 “오동추야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나를 생각는지 나만 홀로 이러한지 임도 또한 이러할지/새벽 서리 찬 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한 구름 속에 비인 소래뿐이로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한 壽宴에서의 헌작 기능을 담당하려면 이 두 구절은 없는 것이 매끄럽다. 그럼에도 집구자는 이를 남겼고, 전승자들은 이를 노래했다. 그렇다면 12가사류 「권주가」가 壽宴 이외의 다른 연회 공간에서 향유했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정현석의 『敎坊歌謠』라 할 것이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기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라 할 것이다. 즉 기생들에게 이 노래 자체가 필수였던 것이다. 기생들이 참여하는 연회가 단지 수연에만 그치지 않았기에 이 노래의 공간 확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12가사 「권주가」가 수연에서 주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여타 공간에서 불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1829(순조29)년 동지사 일행이었던 심전 박사호(心田 朴思浩, 1784-1854)의 연행일기인 <연계기정(燕薊紀程)> 3월 28일자 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6) 김창원, 「조선후기 ‘歌詞’에 대한 역사적 검토」, 정재호 편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643쪽.

맑음. 검수(劍水) 30리를 가서 점심 먹고 서흥(瑞興) 40리를 가서 잤다. 서흥 관아의 북쪽에 새로 지은 한 작은 정자가 있다. 여섯 모로 널찍하고 특트였는데 달빛을 타서 올라가 거문고와 노래를 들었다. 한 어린 기생이 나이는 겨우 15세인데 황계사, 백구사, 죽지사, 권주가, 노군악, 귀거래사, 양양가, 악양루기, 적벽부, 관동별곡, 춘면곡, 오동추야가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앵무새가 지저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학이 맑은 소리로 우는 듯, 앵두 같은 입술에서 속삭이듯 줄줄 흘러나오니 소녀 중의 박식(博識)이라 하겠다.²⁷⁾

박사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자리는 수연이 아니라 사신에 대한 위무의 자리이다. 이는 인생무상과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어린 기생은 단지 일종의 레퍼토리 중 하나로 권주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증언에 의하여 권주가계 노래의 세력화가 독자적이었음이 다시 한 번 인정되는 바이다.

이와 같이 네 가종(장진주사, 시조, 가사, 12가사)이 두루 섞여 조선후기를 이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각각의 개체로 나누어 양상을 살피는 것보다 하나의 계통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존 연구로 ‘어부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현재 어부는 그 표현적으로는 한시현토체, 우리말 단·장가를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쓰인다.²⁸⁾ 물론 문집을 통해서 한시 漁父歌(성현, 남유용)의 명칭도 보이지만 ‘漁父詞’²⁹⁾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국문 시가로는 ‘어부가’가 사용된다. 이 어부가계 작품은 일찍부터 선인들에 의하여 하나의 계통으로 인식된 것으로 파악된다.

러말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지은 작품부터 명공석사, 가객, 어

27) 박사호, 『心田稿』, 燕薊紀程, 3월 28일, 晴劍水三十里午炊瑞興四十里宿瑞興衙軒之北有新構一小亭六稜軒廠樂月上, 聽琴歌有眇然一小妓年纔十五唱黃雞詞白鷗詞竹枝詞勸酒歌路軍樂歸去來辭襄陽歌岳陽樓記赤壁賦關東別曲春眠曲梧桐秋夜歌 初若鶯語之間關忽作鶴唳之寥亮櫻唇咕囁津津流出可謂女娘中博識也.

28) 김선기, 「漁父長歌와 漁父短歌에 대하여」, 『어문연구』 14, 어문연구학회, 1985, 92-108쪽.

29) 박완식, 『韓國 漢詩 漁父詞 研究』, 이회, 2000. 11쪽.

부, 서리, 여항인, 호유, 명기, 무명씨의 작품까지 더하여 내가 지은 장가와 단가 작품 149수를 하나하나 수집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보완하여 써서 다듬어 한 권을 만들고 해동가요라고 이름하였다.³⁰⁾

위의 기록은 김수장의 『해동가요』 서문이다. 그는 이 글에서 여러 작가군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부’를 하나로 독립시켜 분류해 놓고 있다. 그의 작자 분류에 기준점은 창작하던 사람이 직업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리와 여항인의 충돌, 가객·어부·호유의 기준 모호를 들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어부는 유선(遊船)의 뱃사공, 세월을 낚는 강태공, 실제 어부, 어부가를 지어 부르는 전문가의 네 가지로 유추가 가능한데 필자는 어부를 네 번째 인물군으로 보고자 한다. 첫 부류인 뱃놀음하는 인물에 대하여서는 여타의 용어 ‘사공, 도군 등’이 있어 ‘어부’라 불렀을 개연성은 희박하다. 두 번째 부류 역시 강태공류는 주로 맹사성 등의 선비들이므로 명공석사에 이름이 오르기에 해당이 없다. 실제 어부 역시 음악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생활인이라는 측면에서 가객의 한 부류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어부가류를 지어부르거나 가창한 존재에 대한 김수장의 특별한 설정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미 김수장 시기에 ‘어부가’는 하나의 계통 즉 단일 세력으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말 권주가를 하나의 계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었을까 의문이 생긴다. 필자는 그것이 정철 「장진주사」의 지배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당대인들이 ‘우리말 권주가 = 「장진주사」’라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기체가 노래가 최초의 작품 「한림별곡」의 영향 아래 여타 작품이 세를 펴지 못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문인들이 「한림별곡」을 ‘景幾何如’라는 어구를 지닌 작품들의 대명사로 인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황이 ‘翰林別曲類’라고 경기체가 전체를 호명한 것에도 이는 증명된다. 이와 같은 「장진주사」

30) 김수장, 「海東歌謠序」, 『海周』, 自麗季 至國朝以來 列聖御製 及名公碩士 歌者漁者 胥史閭巷 豪遊名妓 與無名氏之作 及自製長短歌一百四十九章

의 영향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기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선 이유원의 기록 뿐만 아니라, 조인영(1782- 1850)의 한시「遙次詩山沈使君英叟能淑 披香亭」의 “浮生不醉將何耐 長進佳人竹葉盃” 구절의 소주에 아래의 기록이 있다.

정 송강 상공이 기녀에게 명하기를 장진주의 ‘將’자는 차마 얻지 못함이니 마땅히 ‘長’자로 고쳐야 한다. 대개 시산고사이다. 역시 기문 중에 넣고 연고를 말한다.³¹⁾

조인영과 정철의 연차는 250여 년 정도이다. 그런데도 조인영은 단지 시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고사를 인용하여 ‘덧 없는 인생이 아니 취코 장차 어이 견디리 길이 가인에게 죽엽배를 드리네’라고 용사하기까지 하였다. “‘將’자를 쓰면 앞으로의 뜻이 있으니 술을 마실 수 없으니 마땅히 [길게(長)마시려면] ‘長’자를 써야 한다”라는 골계적 고사를 인용하고, 그에 어울리는 시까지 지은 후대인의 모습에서 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조인영의 이러한 인용과 용사를 두 세대 뒤의 김윤식(1835-1922) 역시 사용하고 있다.³²⁾ 이처럼 시가 향유의 최상층 존재들에게 우리말 권주가는 당연히 「장진주사」였던 것이다.

한시의 흐름과 별도로 국문학적 양상을 살펴 보아도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하겠다. 이 정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정철 「장진주사」 수록 가집의 편수이다. 『역대시조전서』의 자료를 보면, 해당 가문의 『송강가사』 이본들을 제외하더라도 총 20종의 가집(청진, 시가, 청가, 근악, 청육, 흥비, 동가, 원국, 원규, 원하, 원육, 원불, 원박, 원황, 해악, 원가, 협률, 여요, 시요, 대동)에 이 작품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집들이 제목까지도

31) 조인영, 『雲石遺稿』 卷之三, 詩, 松江相公命妓曰將進酒之將字耐不得 改以長字 盖詩山故事 亦入於記文中 故云

32) 김윤식, 『雲養集』 1, 詩, 承平館集. 又敬次石川韻, (起句)對君長進酒 鄭松江相公命妓曰將進酒之將字 耐不得 宜改以長字 亦詩山故事也 趙芸石相公詩 浮生不醉將何耐 長進佳人竹葉盃.

「장진주사」, 혹은 「장진주」로 표기하여 원 노래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김기수의 악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장진주’는 정철의 노래이다. 박인로의 「권주가」나 신흙·김천택의 시조가 비록 후대로 전승은 되었지만 우리말 권주가로서 정철의 작품과 비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집 수에서는 12가사류가 17종에 수록되어 있어 비교할 수 있는 외적 요건은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각 가집에 따라 거의 각편이라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 있는 실정이다.³³⁾ 이러한 작품에 대하여 선인들이 「장진주사」와 같은 영향력을 부여했다고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선인들이 「장진주사」의 장악력에 매어 있다고 현재의 연구자들까지 그럴 이유는 없다. 우리가 현재 전수받은 작품들이라는 것은 그 세력이 강하든 약하든 생존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선인들 역시 「장진주사」의 존재가 있음에도 다른 우리말 권주가를 향유하고 창작하였다는 점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노래군은 ‘우리말 권주가’라는 계통으로 확정하여 그 독자 세력을 인정하여야 하겠다.

4. 결론

음주는 인간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그 안에서 문학적 생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본고는 음주 문학 중에서도 권주라는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가 특히 우리말 권주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양 문학에서 그 연원이 오래된 ‘장진주’ 시가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말 권주가의 내용적 일체성과 작품군의 실상을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우리말 권주가들이 내용적으로 일정한 계통성을 지니고 있

33) 김은희, 앞의 논문, 160-162쪽.

음을 확인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당나라 이백, 이하의 「장진주」에서 드러냈던 주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인생무상에서 오는 비애의 정감’과 그에 따른 ‘음주의 당위’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주제의식은 「장진주사」부터 12가사류「권주가」까지를 모두 貫流하고 있다. 또 이 작품들은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몇 가지 동일한 표출 양상을 보인다. 우선 이하의 「장진주」에서 비롯된 죽은 이후의 무의미함을 통해 인생무상을 노래한다. 사망 이후에 누가 술을 권하겠는가라고 지적하여 비애와 당위를 모두 드러내는 양상이다. 다음으로 권주의 대상 ‘君, 그대’가 표면적이거나 내면적으로 등장한다. 自酌이 아닌 酬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노래이기에 他者の 존재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술 권하는 행위가 言辭로 나타난다. ‘잡으시오, 먹새그려’ 등의 직접적 명령이나 권유 외에 ‘안 먹으려 하는가’와 같은 간접적 요구도 등장한다. 이러한 어구들이 모두 권주의 실제적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3장에서는 우리말 권주가의 계통화를 이루어 유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이 계통의 최초 작품은 「장진주사」라 할 수 있다. 이 노래와 함께 『청구영언』에 수록된 신흘·김천택·무명씨의 시조, 박인로의 「권주가」는 동시대에 향유되었기에 같은 가집에 수록되었다. 또한 12가사 「권주가」 역시 18세기에는 형성되었는데 후대 가집에서 앞의 세 종과 혼재되어 나타난 양상을 보인다. 즉 네 노래가 일정 시간에 같은 연행 공간에서 향유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계통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개별 작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우리말 권주가가 축수(祝壽)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술자리에서 유통되었음도 본고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하나의 독립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노래를 하나의 계통으로 파악했던 예를 ‘어부가’에서 찾을 수 있다. 한시 ‘어부사’에 대비하여 우리말 노래를 ‘어부가’로 계통화한 것이다. 그에 비출 때, ‘우리말 권주가’로 이러한 술 권하는 노래를 하나의 계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와 같

이 우리말 권주가에 대한 시각을 거시화한다면 조선 후기 우리문학사가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시조 대전』
김기수, 『여창 여든여덜 님』, 은하출판사, 1980.
김수장, 『海東歌謠』
김윤식, 『雲養集』
김천택, 『靑丘永言』
김춘택, 『北軒居士集』
마에마 교우사쿠(前間恭作) 편, 『校註 歌曲集』, 정양사, 1951.
박사호, 『心田稿』
박인로, 『庚午本 蘆溪歌集』
박인로, 『蘆溪集』
申欽, 『象村集』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이유원, 『嘉梧藁略』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흥인문화사, 1976.
정철, 『松江歌辭』
정현석, 『敎坊歌謠』
조인영, 『雲石遺稿』
허균, 『惺所覆瓿藁』
홍만중, 『洪萬宗全集』
『大東風雅』

2. 논저

- 강재현, 「정철 <將進酒辭>와 박인로 <勸酒歌> 대비고찰」, 『어문연구』
74, 어문연구학회, 2012.12, 157-174쪽.

-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연구」,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3, 219-239쪽.
- 김석배, 「박인로의 <권주가> 연구」, 『문학과 언어』 30, 문학과 언어학회, 2008. 5, 27-50쪽.
- 김석배, 『庚午本 蘆溪歌集』 구미문화원, 2006.
- 김선기, 「漁父長歌와 漁父短歌에 대하여」, 『어문연구』 14, 어문연구학회, 1985, 92-108쪽.
- 김성은, 「노계 <권주가>의 詞에 나타나는 특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5, 209-235쪽.
- 김은희, 「<권주가>에 대한 일고찰 - 노랫말 존재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1, 반교어문학회, 2011. 8, 155-186쪽.
- 김중렬, 「사설시조의 형성에 미친 唐詩의 영향」, 『어문논집』 19·20,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77. 9, 343-358쪽
- 김창곤, 「歌詞 권주가의 史的 考察」, 『한국음악연구』 27, 한국음악학회, 1999. 12, 129-147쪽.
- 김창규, 『노계 시문학 논고』, 박이정, 2006.
- 김창규, 『노계시평석』, 박이정, 2008, 329-354쪽.
- 김창원, 「조선후기 ‘歌詞’에 대한 역사적 검토」, 정재호 편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박완식, 『韓國 漢詩 漁父詞 研究』, 이회, 2000.
- 성범중, 「<將進酒> 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韓國漢詩研究』11, 한국한시학회, 2003. 10, 381-415쪽.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87.
- 이완형, 「송강의 <장진주사> 연구 - 장르 귀속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26집, 어문연구학회, 1995. 5, 343-359쪽.
- 정인숙,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형성과 변화의 맥락」,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12, 7-36쪽.

<Abstract>

Systematic study of Korean liquor recommending songs

Kang, Jae-heon

Drinking is a culture that occupies a huge part in human life. As a result, it is true that literary creations continue to appear within such culture.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the features of poetries that play the role of the unique function called gwonju (offering drinks) among the drinking literature, and in particular, th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The substantive uniformity of the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and the reality of the group of works that inherit the pulse of the poetry of 'Jangjinju,' which has long been originated from the eastern literature, will also be studied.

First of all, this research examined the thematic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aspect of the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Substantively, the works all follow the tradition of the thematic consciousness appearing in 'Jangjinju' of Lee Baek and Lee Ha during the Tang dynasty. The thematic consciousness that can be organized into two themes, which are 'the feeling of sorrows coming from vanity of human life' and 'the justification of drinking' pursuant to such feeling, all flow through from 'Jangjinjusa' to 'Gwonjuga,' a 12 Lyrics Collection. In addition, these works show several of the same expression aspects to show such themes. First of all, vanity of human life is sang through the meaninglessness of post-death originating from 'Jangjinju' of Lee Ha. It shows an aspect of exhibiting both sorro

w and justification by asking, who would recommend drinking after death. Next, the object of gwonju, 'Mr., You,' appears externally or internally. It can be said that the existence of others was necessary because it was a song playing the role of the function of exchanging drinks by filling the other's glass rather than drinking by oneself by filling one's own glass. Lastly, the act of recommending drinking appears through the language. In addition to the direct orders or suggestions to drink, such as 'Drink,' or 'Let's drink,' indirect demands such as 'Are you not trying to drink?' appear as well. These phrases are all used as a device to show the actual feature of gwonju.

Next, this study examined the power of the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and the possibility of its systematization. The first work of this category that may be confirmed at present is 'Jangjinjusa.' The Korean poems of Shin Heum, Cheon-taek Kim, and an anonymous poet and 'Gwonjuga' of Park In-ro that were included in Cheonggu-Yeongeon along with this song, were listed in the same collection of poems because they were enjoyed in the same era. In addition, 'Gwonjuga' in the 12 Lyrics Collection was also formed in the 18th century, which shows the aspect of appearing in combination with the three previous types. Thus, four songs were enjoyed in the same entraining space at a certain time. However, there was a trend of treating these as individual works rather than under one system. This article made attempts to regard these as one independent system. An example of trying to understand various forms of songs under one system can be found in 'Eobuga.' It has systematized Korean language songs as 'Eobuga' in comparison to the Chinese poem, 'Eobusa.' In light of such, the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were understood to be sufficiently likely to be systematized under one system. Of course, the meaning obtained in the study of each song is huge. However, the breadth and sectors of Kor

ean language poetry can be expanded and the horizon of the literary history can be enlarged through systematization. Thus, the Korean literature history at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era can be expected to become richer when having a macroscopic view regarding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Moreover, the works that we inherit at present have meaning through its survival, whether or not they have strong or weak power, thus accordingly, other works also have huge value.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be reminded of the fact that our ancestors enjoyed and created other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even when the existence of ‘Jangjinjusa’ was strong. Therefore, just as ‘Eobuga’ gained a status of an independent collection of works during the Kim Su-jang era, it would be proper to acknowledge the Korean language gwonju songs as an individual system this day.

Key words : Korean liquor recommending songs, Nihilistic life, Jangjinjusa, Gwunjuga, Sijo, Gasa, Systematization, System

투고일 : 2016년 7월 15일, 심사 : 8월 8일 ~ 8월 18일, 게재확정 : 8월 22일